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하며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함

성경: 빌 1:5-6, 19-21상, 22-25, 27, 4:22, 행 1:8, 살전 1:3, 5, 고전 15:58

- I. 하나님의 의도는 지방 교회가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즉 그 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하는 것이다—빌 1:5-6.
- A.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생활이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며,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닌 단체적인 생활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이 있는 것이다.
- B. 우리가 복음의 확산 안에서 더 많이 교통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린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와 야심과 선호와 선택을 죽인다.
- C. 복음 전파의 움직임은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
1.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열매 맺음으로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포도나무의 가지들 중에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없다—요 15:1-5, 12, 17.
 2.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러한 상호 사랑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에 대한 강한 증거가 된다—요 13:34-35.
 3.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몸의 생활에 의한 것이며 몸의 생활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 D.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라’고 명령했다—빌 1:27.
1.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 안에서 한 혼’이 될 때, 이러한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 굴복시키고 매혹하여 구원받게 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조화가 없다면 이것은 구원하시는 영을 죽일 것이다.
 2. ‘함께’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동역 안에 한 사람처럼 협력하다’는 의미와 ‘한 팀의 운동선수들처럼 서로 온전히 협력하며 싸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웨스트).
 3. ‘함께 분투하고’라는 표현은 복음이 수고와 인내의 문제라는 것을 가리킨다. 활력 그룹들은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에 따라 전진해야 한다.
 - a. 믿음의 일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봉사의 기초이고, 사랑의 수고는 우리의 믿음의 일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열쇠이며, 소망의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일을 오래 지속되게 한다.
 - b. 소망의 인내는 모든 종류의 절망과 낙심과 불가능을 정복하고 모든 종류의 반대와 장애물과 좌절을 이긴다—고전 15:58, 살후 3:5.

- II. 진정한 복음 전파는 생명의 방식에 있다. 복음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의 공급,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생활이다—빌 1:19-21상, 행 5:20.
- A.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의 내적 체험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요 15:5, 행 16:23-25, 30.
- B.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서 살고 있었고 외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의 일에 열매'라고 말한 것은 그의 일이 사실상 그의 생활이었음을 가리킨다—빌 1:22.
1. 바울의 일의 열매는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살아 나타나시고 확대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되시고 옮겨 부어지신 것이다.
 2. 바울의 살아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자신이 확대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부은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확대함으로써 가이사 집의 집에 속한 몇몇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빌 4:22.
 3.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고 말했다—빌 1:12, 18.
- C.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생활로 그의 영적 자녀들을 먹였다. 사람들을 목양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보이는 것이다—살전 2:1-12.
1.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이 확산한 복음의 본이었다—"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살전 1:5하.
 2.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것은 사도들의 생활 방식이 새로 돌이킨 사람들 안으로 복음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살전 1:5, 9, 2:1, 11상.
- D.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자들이 주님의 증인들, 주님의 순교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이것은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행 1:8.
1.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고(살전 2:3-6, 10)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면서까지 새로 돌이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7-9, 11절)이 우리가 전파한 복음 안에서 전달되는 구원을 그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들이다.
 2.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소비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기꺼이 소비하기를 원했다—고후 12:15.
- E. 바울로 인하여 교회들은 생명의 성장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이어야 한다—빌 1:25.
1. 바울은 극도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했기 때문에 성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옮겨 붓고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었다.
 2. 바울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육체 안에 남아 있을 것인가를 고려한 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주님과 교회에 철저하게 점유되어 있었다—빌 1:23-24.
 - a. 우리가 육체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느냐가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우리 존재의 깊은 속으로부터 성도들의 존재의 깊은 속으로 그리스도를 옮겨 붓는 데 달린 것이다.
 - b. 몸의 생활 안에서 주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우리를 얻으셔서 공급의 통로들이 되게 하셔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